

1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

□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7조('18.5.3 제정)

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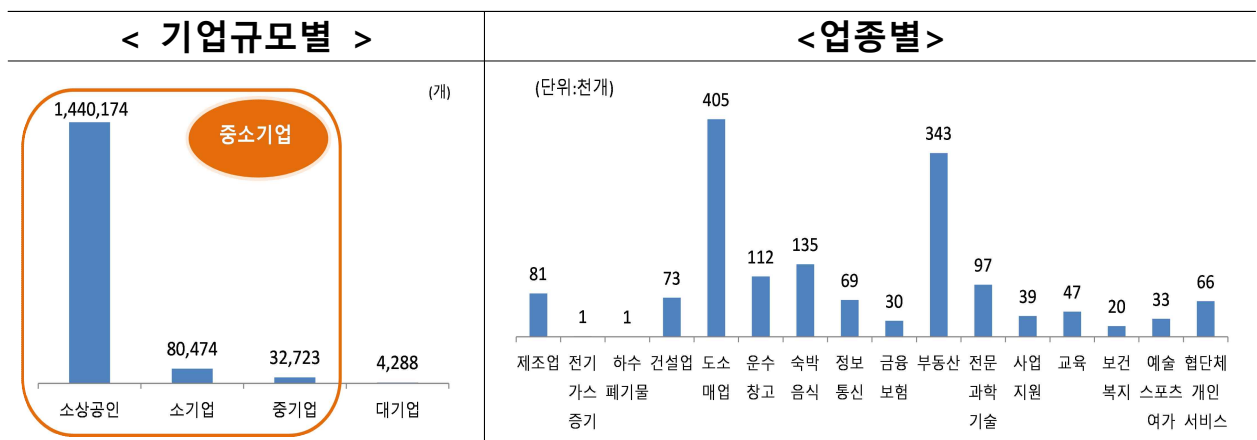
- 실태조사 추진기간 : '22. 8. 25. ~ '23. 2. 28.
- 수행기관 : (주)메트릭스
- 사업예산 : 168백만원
- 사업내용 : 활용도 높은 결과 도출을 위해 다각도에서 중소기업 특징 파악

구 분	주요 내용
① 중소기업 기본현황 (통계)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목적 : 기본통계 작성하여 중소기업 구조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-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통계 DB에서 서울 자료 추출- 기간 : '22.12.20.~'23. 1.20.- 내용 : 산업별·지역별 중소기업수, 종사자, 매출액 분포, 전국 비교
② 서울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목적 : 중소기업 현장 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- 대상 :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5,000개사 ※ 숙박음식점, 교육서비스업은 3억원 초과 기업- 방법 :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한 대면조사, 필요시 이메일 등 병행- 기간 : '22. 9.26.~11.25.- 내용 : 인력, 해외진출, 신산업 추진, ESG 실태, 정책 인지
③ 전문가 자문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목적 : 실태조사 결과와 이슈 상황에 따른 상호 연관성을 전문가 시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- 대상 : 산업연구원,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 9명- 방법 : 서면 자문 실시(조사 결과 사전 전달)- 기간 : '23. 1. 2.~ 2. 3.- 내용 : 조사결과 해석, 대내외 경제여건, 중소기업정책 방향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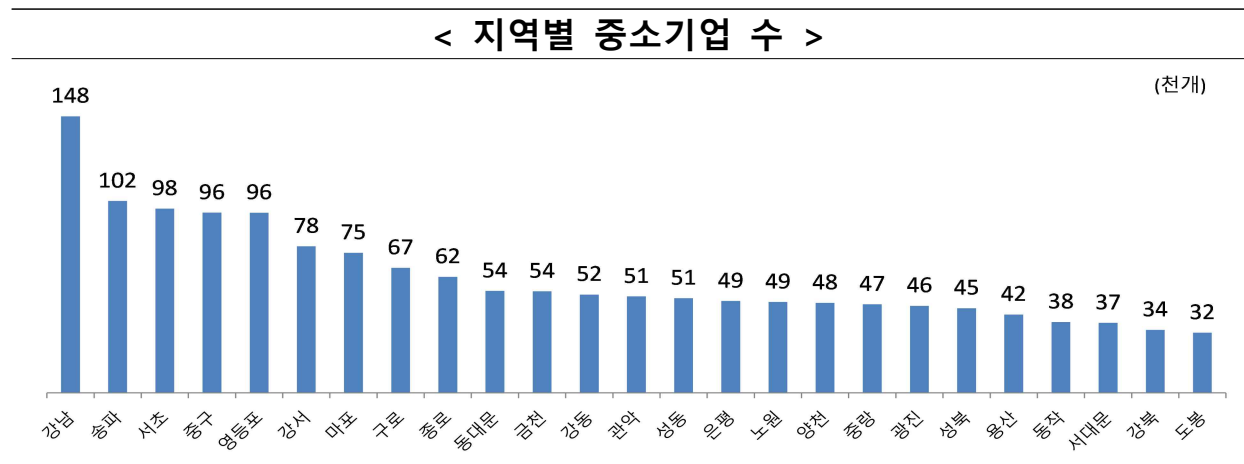
□ 주요결과

① 중소기업 현황(2020년 기준)

- 서울 중소기업 수는 증가한 반면, 매출액 및 종사자는 감소
 - (기업수)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.7%(155만개), '19년 147만 대비 5.4% 증가
 - (매출액)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27.4%(673조원), '19년 683조원 대비 1.5% 감소
 - (종사자) 종사자는 전체 기업의 62.7%(406만명), '19년 407만명 대비 0.2% 감소
- 중소기업 대부분은 소상공인, 업종은 도소매 및 부동산업이 48.2%
 - (규모별) 소상공인이 92.5%(144만개)로 영세성 높은 편
 - (업종별) 도소매업(26.1%), 부동산(22.1%) 등 경쟁 포화 업종에 편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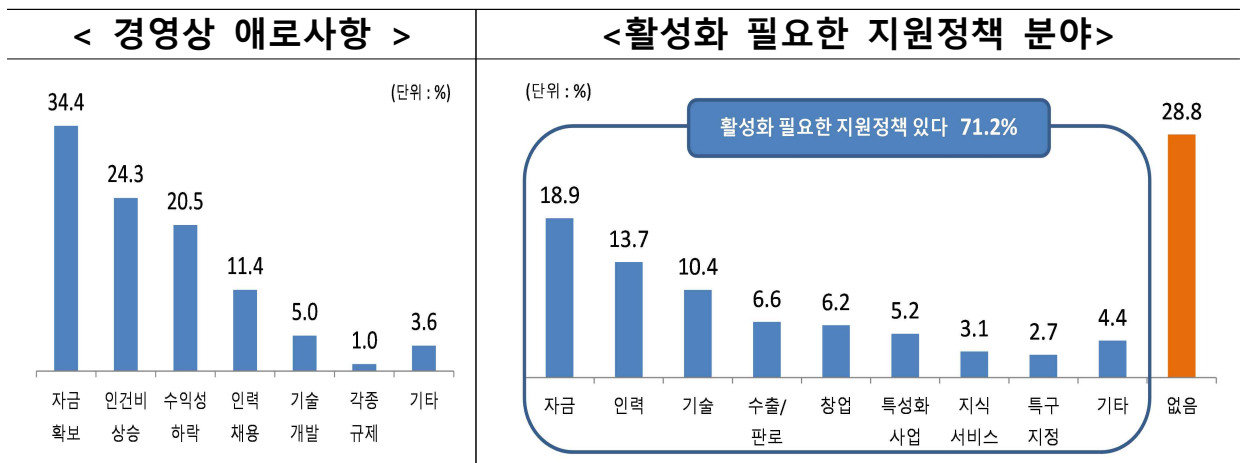


- 지역별 중소기업은 강남, 송파, 서초, 영등포, 금천구 순으로 분포



② 중소기업 실태조사 주요결과

- **(경영 애로사항)** 서울 중소기업은 자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큼
 - 주요 애로사항 : 자금 확보(34%) > 인건비 상승(24%) > 수익성 하락(20.5%)
- **(지원정책 수요)**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는 71.2%로 높은 수준
 - 자금(18.9%) > 인력(13.7%) > 기술(10.4%) > 수출/관료(6.6%), 창업(6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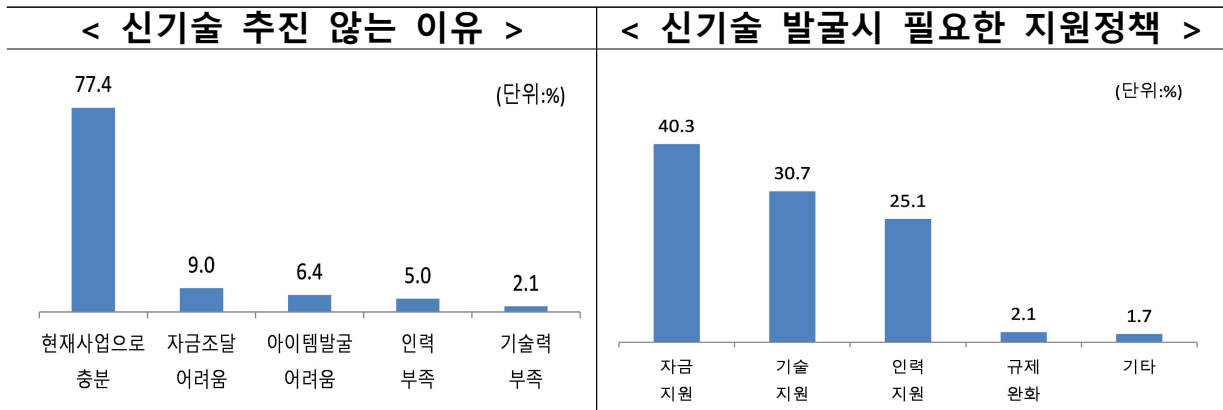


- **(지원정책)** 지원정책 인지율 15.8%, 경험률 5.3% 로 낮은 수준
 - 인지한 정책 : 자금(12.9%) > 창업(4.8%) > 인력(4.7%), 기술(1.8%)
 - 경험한 정책 : 자금(4.0%) > 인력(1.3%) > 창업·기술·수출/관료(각각 0.2%)
 - ※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: ‘선정 평가요건 까다로워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’, ‘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’, ‘필요한 지원 혜택이 없어서’ 등으로 응답
- **(해외진출)** 수출 중소기업 비중 적고, 내수 시장 중심으로 운영
 - 현재 수출 중소기업 5.4%, 내수기업 94.6%
 - 비수출 기업 중 99.3%는 향후 3년 이내 해외진출 시도할 의도 없다고 응답
- **(교육)** 재직자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
 -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.7%
 -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0.6%

○ (신 사업) 신기술 활용 또는 추진 중인 기업 2.2%로 적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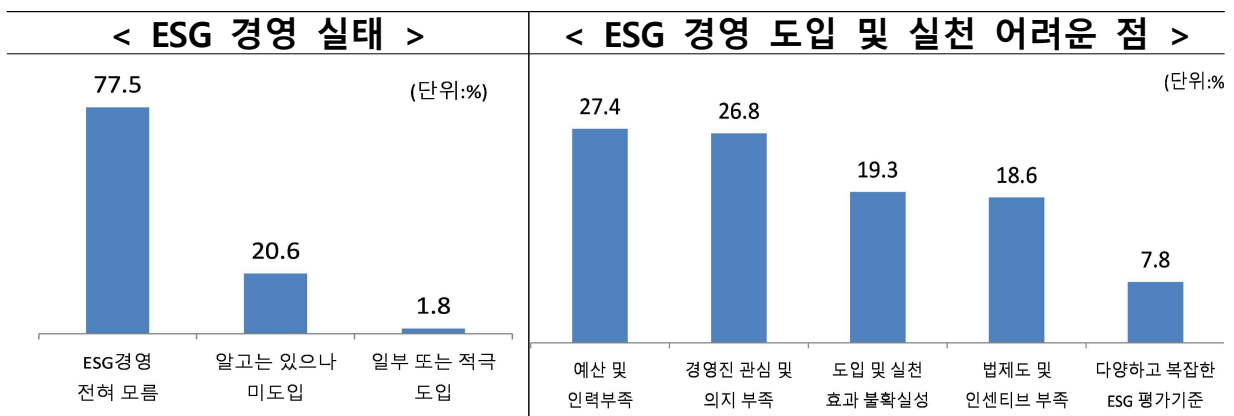
- 업종 중 정보통신업(11%)에서 신기술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
- 신사업(신기술) 미도입 사유 : 현재 사업만으로 충분하다는 응답 77.4%
- 필요한 지원정책 : 자금(40.3%) > 기술(30.7%) > 인력(25.1%)

※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(48.2%), 전문과학서비스(35.9%) 등은 기술지원 요구가 높음



○ (E S G)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 22.5%로 낮은 수준

- ESG 경영 도입(1.8%), 알고 있으나 미도입(20.6%), 전혀 모른다(77.5%)
- 도입 이유 : 경영성과 향상(45%), > 기업 이미지 개선(18.7%) >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로부터 준수 요구(14.6%) > 신성장동력 확보(14.5%)
- 도입 어려운 점 : 예산 및 인력 부족(27.4%) > 경영진 관심 및 의지 부족 (26.8%) > 도입 및 실천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(19.3%)



○ (투 자) 최근 관심있는 투자 분야가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42.7%

- 에너지절약(15.2%) > 환경오염방지(11.7%) > 취약계층 위한 사회공헌(7.1%)

1. 지원정책 분야

- (조사 결과)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지율 및 경험률이 낮고, 자금·인력·기술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
 - 기업들은 자금, 인력, 기술, 판로지원 등의 순으로 지원정책 활성화 필요성 언급
- (최근 동향) 중소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, 대부분 생산성 저조한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경기침체에 취약한 구조

→ 중소기업의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 및 지원 필요

2. ESG 분야

- (조사 결과)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,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ESG 도입 미흡한 실정
- (최근 동향)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제도 중심으로 ESG 강화, ESG 경영이 글로벌기업 및 투자자 등으로부터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으로 확대

→ ESG 인식확산 및 교육 강화, ESG 컨설팅 지원 등 정책 추진 필요

3. 신기술 분야

- (조사 결과) 중소기업들은 신사업 추진 및 투자 의지가 낮고 고착화된 상황
 - 신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및 높은 비용 부담 영향
- (최근 동향) 금융위기 이후 기업 생산성은 둔화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고 있어 높은 생산성을 가진 분야로 기술혁신 필요

→ 신기술 확산 및 보급 위주로 정책 추진하되, 정보통신업종 등 신기술 수요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지원도 필요